

광양시 “한 명이라도 더..” 인구 유입 박차

‘인구플러스, 시민 정책토론회’ 청년 주택·은퇴자 지원 방안 등 지역 특성·시민 수요 정책 주문

광양시가 인구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 정책토론회를 갖는 등 인구 유입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5일 ‘인구플러스, 시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모든 세대의 희망찬 미래를 확산하는 행복 광양 구현’이라는 주제로 락희호텔에서 열린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과 진수화 광양시의회의 의장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저출산과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의 인구 위기 상황을 시민과 함께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주기반, 아이 양육, 청년자립, 노후 활력” 등 4개 분과로 나눠 정책 당사자인 시민이 의견을 내도록 했으며, 토론회는 원탁별로 전문

퍼실리테이터(진행자)의 도움을 받아 시책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패널 중심의 토론 발표와 달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분과별 대표가 결과를 발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는 대동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원정 분과위원의 ‘인구플러스, 청년에 답이 있다’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광양시 인구정책 추진 방향 보고, 시민들이 참여한 원탁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시 인구정책 비전 실현을 위한 원탁토론 시간에는 ▲광양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반시설 ▲초등 방과 후 돌봄 추진 ▲청년 창업 플랫폼 구축 방안 ▲은퇴자 재능, 경력 지역사회 활용 방안 등 4개 토론 의제로 나눠 각종 의견을 교환하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올해 초 ‘광양시 인구 영향 검토’의 자문을 맡은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해 4개 분과에서 도출된 정책을 검토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보완점과 파격적인 주거복지 지원방법, 청년 여가 문화 인프라 확충, 맞벌이 부부 돌봄 지원, 은퇴자



광양시 인구플러스 시민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지원방안 등 청년과 은퇴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시책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정책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광양시 인구정책 시행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은 “토론회는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였다”면서 “광양시의 발전과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 유익한 제안들이 많이 나온만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신청사 건립 본격화... 부지내 지장물 해체공사 착공

내년 3월 지장물 철거 마무리 2022년 9월께 본 공사 착공

순천시가 ‘순천 시민의 집! 새로운 미래 100년’이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지난 15일 청사 건립부지 지장물 해체공사 기념식을 갖고 청사 건립을 본격화 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을 신청사 건립부지로 내어준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위로하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순천시립 어린이 합창단이 새집 마중 노래로 ‘두껍아 두껍아’를 합창했다. 신청사의 새집을 얻어 행복이 깃들고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루는 의미가 담겼다.

이어 신청사 건립을 알리는 퍼포먼스로 ‘새로운 미래 100년’이 시작됩니다” 글귀가 새겨진 대형현수막이 펼쳐지고 굴삭기가 철거 대상건물을 시타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오랜 순천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건립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모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신청사가 우리 순천시의 자랑스러운 그리고 시민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30만 자족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2년 3월까지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를 마무리하고 2022년 9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에 완공·입주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정유재란 의·승병 애국충절 기린다

석주관 칠의사 추모 제례 봉행

구례군은 지난 16일 석주관 칠의사에서 정유재란 때 목숨을 바쳐 싸운 의·승병을 기리기 위한 제향이 열렸다고 밝혔다.

칠의사는 정유재란(1597년) 때 순절한 칠의사(七義士) 왕의성, 왕의성, 이정익, 한호성, 양응록, 고정철, 오종과 당시 구례현감 이원춘을 모신 묘(석주관성 칠의사 묘)와 마주보고 있다. 칠의사에는 목숨을 바쳐가며 마지막 애국충절을 지킨 수많은 의·승병의 넋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뜻을 기리고자 매년 음력 9월 중정일에 칠의사 원중회를 중심으로 제향이 열리고 있다.

이번 추모제에서는 조현관 김순호 구례군수가 맡아 봉향을 올렸으며, 제향일을 잊지 않고 모인 많은 후손들도 함께 봉향을 올렸다.

구례의 석주관성은 고려 말기에 설치된 진이다.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대군을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이기에 정유재란(1597년) 당시 석주관성은 대규모 공격을 무참히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구례군 관계자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 고장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공포를 무릅쓰면서도 구례의 의·승병들이 일어났다”면서 “후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의로움과 충절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난 16일 구례 석주관 칠의사에서 정유재란 때 목숨을 바쳐 싸운 의·승병을 기리기 위한 제향이 열렸다. <구례군 제공>

보건복지 전달 체계 조사 곡성군, 용역착수 보고회



곡성군이 최근 전남도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보건복지 전달체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연구용역은 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림돌(다 함께 드림 돌봄공동체) 복지사업에 대한 성과와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은 올해 8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 공모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2022년 12월까지 다림돌 복지사업에 추진하고 있다.

22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보건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2022년 2월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다림돌 사업을 통해 농촌형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표준 모형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주민 중심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우리 군이 먼저 농촌형 복지전달체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여수시, ‘조상땅 찾아주기’ 호응 560명에 140만㎡ 토지 찾아줘

여수시가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자손들이 모르는 조상 명의 토지나 토지현황을 알 수 없는 본인 명의 토지를 상속자들에게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여수시는 올해 3분기까지 560명에 1314필지 140만㎡의 토지를 찾아줬다.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사·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신청 즉시 조회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다.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하며, 위임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